Pelikan, Jaroslav. *The Growth of Medieval Theology (600-1300). The Christian Tradition, vol. 3*. New Haven. CT/London, 1978.

Rubin, Miri. *Corpus Christi: The Eucharist in the Late Medieval Culture*. Cambridge/New York: 1991.

Tavard, George A. "Calvin and the Nicodemites". *John Calvin and Roman Catholicism: Critique and Engagegment. Then and Now*. ed. Randall C. Zachma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Torrance, J. B. "The Vicarious Humanity and Priesthood of Christ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Calvinus Ecclesiae Doctor*. ed. W. H. Neuser. Kampen: Kok, 1978.

Vatja, Vilmos. *Die Theologie des Gottesdienst bei Luther. Stock holm*: Svenska Kyrkans Diakosistyrelses, 1952.

Zachman, Randall C. *The Assurance of Faith: Conscience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한 고찰

이용규
(함께하는 교회)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칼빈의 신학을 통하여 선재성 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있다. 그는 '칼빈주의적인 외각'으로 일컬어지는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한다. 그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구원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구원론적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 그의 신학 속에서 경륜적 삼위일체 사상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재적 삼위일체론도 부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만약 경륜적 삼위일체만을 말하게 된다면 양태론(modal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반대로 경륜적 삼위일체와 관련 없이 내재적 삼위일체만을 논하게 되면 사변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칼빈은 경륜적으로 계시된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를 말하고 이를 토대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양태론과 사변적 신학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로는 현대 신학

논문투고일 2015.11.29. / 수정투고일 2015.12.30. / 게재확정일 2016.1.11.

자들의 견해처럼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구별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치중하므로 양자론(adoptionism)에 빠질 수 위험성도 배제시켰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기독교를 인간 성취의 종교로 변화시키는 것을 막아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방향 설정과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주제어: 그리스도의 선재성, 성육신, 양자론, 양태론, 삼위일체 하나님, 칼빈주의적인 외각

I. 서 론

신약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초대 교회들은 예배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고백을 하였다.[1] 여러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조들에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그리스도의 선재(preexistence)[2]는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3]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19세기에는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의 삶에 대한 탐구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구자들은 불트만(Rudolf Bultmann)의 약점을 보완하여 역사적 예수와 선포의 그리스도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또 하나의 실존적으로 채색된 예수를 나타낼 뿐이었다.[4] 선재성 교리에 대한 현대적 재고들도 성경적 해석이기 보다는 계몽주의적 회의주의의 산물이다. 이러한 현대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신화적이라고 주장하거나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재설이 교의학에서 불필요함을 역설하는 이도 있다.[5]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16세기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인 칼빈(John Calvin)의 그리스도 선재성 이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6] 본 논문의 목적은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리로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II. 그리스도의 성육신

칼빈은 성육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육신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7] 성부에 의해서 우리에게

1) 이용규 ·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18호 (2013 봄여름호), 173-79.
2) *Wolfhart Pannenberg, Was ist der Mensch?* 허혁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서울: 성광문화사, 1981), 8. 선재(preexistence)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테면 우주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Fred Craddock, *The Pre-existence of Chris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68), 185.
4) Charles C. Anderson, *The Historical Jesus: A Continuing Que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112.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구에 대해서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트만과 그의 제자들은 역사적 전망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 그들은 역사의 문제를 피한 것에 불과하고 단지 더 나은 종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척했을 뿐이다."
5) Reginald H. Fuller, "Pre-Existence Christology: Can We Dispense With It?" *Word & World 2* (Alexandria: Virginia Theological Seminary, 1982): 29-30. "Hans Grass and others have argued that contemporary systematic theology should abandon pre-existence Christology. It is, they say, irretrievably mythological. It has no basis in the self-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Jesus."
6) Cf. Willem van't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역 (서울:부흥과 개혁사, 2009), 251-79: 판 엇 스페이커르는 본 저서에서 칼빈이 개혁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l, trans. F.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2.12.1 이후로 *Inst.*로 약칭함.

보내어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한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족장들을 다루어 왔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8]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다. 그러나 성자는 성육신한 중보자이시지 성부는 아니다.[9] 칼빈은 예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한다.[10] 그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해 말할 때 신성과 인성의 결합과 두 본성의 구분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와 같이 칼빈이 두 본성을 구분하므로 성육신의 사실에 대한 표현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신성 자체에 대한 변화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

칼빈에 의하면 성육신의 신비는 사실상 하늘과 땅의 거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차이를 연결하여 인간을 하나님께로 연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의 불의는 마치 구름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득 끼어 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고 말았다(참조, 사 59:2).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평화를 회복시킬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친근하게 세우신 것이다.…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이를테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사 7:14, 마 1:23), 그리하여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인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이다.[11]

8) *Inst.*, 1.13.10.
9) *Inst.*, 1.13.19.
10) *Inst.*, 2.14.2.
11) *Inst.*, 2.12.1.

칼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엄청난 거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위엄'(majesty of God) 그분 자체가 강림하였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벌어진 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2]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히 4:5)이시다.[13]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이나 이후에도 항상 그의 통치권을 가지신다고 설명한다.[14] 그러므로 그에게 성육신과 선재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인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섭리주되시고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15]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구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런 관점이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성이나 참 신성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킨 잘못된 사상들을 비판하게 한다. 이를 테면, 칼빈은 인간이 불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변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16]

그는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위격적 성품과 정체성을 가진 신적 위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17] 사실상 선재하심

12) *Inst.*, 2.12.1.
13) *Inst.*, 2.12.1.
14) *Inst.*, 2.16.15.
15) *Inst.*, 2.12.7.
16) *Inst.*, 2.12.6.
17) *Inst.*, 2.12.2.

없이는 성육신 사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만약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육체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육신의 주체는 선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재는 결코 어떤 사변적 관심에서 솟아나지 않았다. 그것은 구원론적 관심에 이바지하면서 구원에 최종적 근거를 제공한다.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재하신 말씀으로서 활동하실 때는 창조주시며 섭리주가 되시며 성육신하심으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18]

Ⅲ. 칼빈주의적인 외각(外殼)[19]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늘을 버리지 않았으며 항상 세상을 충만히 채우셨다는 사실을 말한다.[20] 그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이 육신 안에 성육신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초판(라틴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는 신성에 따라서 바로 그곳으로부터 내려오셨다고 말하여지는 것은 신성의 육체의 감옥에 자신을 숨기고자 하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신성이 모든 것들을 채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 가운데서 육체적으로[골 2:9] 즉 자연적으로,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거주하셨기 때문이다.[21]

18) *Inst.*, 1.13.7-8.; Cf.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The Function of the So-called Extra Calvinisticum in Calvin's Theology* (Leiden: E. J. Brill, 1966), 8-25.
19) 이용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신학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5년), 33-35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었음.
20) *Inst.*, 2.13.4.
21)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e Religionis*, 문병호 역,『기독교 강요('1536년' 라틴어 초판 직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354.

칼빈은 고대 교부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따라 신적 로고스가 예수 안에 성육신하였을 때 로고스는 계속해서 온 우주를 채웠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칼빈의 논리를 '칼빈주의적인 외각'(extra Calvinisticum)이라고 부른다.[22] 이 용어를 통해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때, 전체적으로(totum) 제2위의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으로서 남아 계시면서 동시에 동정녀의 몸에 전체적으로(tota) 들어가셔서 성육신하심으로써 구속주가 되셨다는 의미이다.[23]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신 동시에 성육신하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심을 나타낸다.[24]

'칼빈주의적인 외각'에 대한 원리는 성만찬에도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설명한다. 그는 믿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는 신성이 하늘을 떠나서 육체라는 감옥에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은 비록 만물에 충만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이다.[25]

22) 여기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시오.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111;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8-25: 'extra Calvinisticum' 이라는 용어는 원래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루터파 비판자들의 말에서 온 것이다. 이를테면, 칼빈주의자들이 그리스도(신성)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밖에서'(etiam extra carnem) 완전한 신성으로 여전히 인성 밖에서 계신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비난한 말에서 온 것이다. 윌리스는 'extra Calvinisticum' 은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 모두에 있어서 공통적인 이해였음을 언급한다.
23) 최윤배,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한국조직신학회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06.
24)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78-100.
25) *Inst.*, 4.17.30.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과 떡과 포도주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복음 신앙으로 구원 받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함으로써 전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다.[26]

칼빈의 '칼빈주의적인 외각'은 성육신과 두 본성 교리에도 적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혹은 육신과 혼동하여 뒤섞였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의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고 연합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손상되지 않은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두 성품은 한 그리스도를 구성한다. 따라서 칼빈의『기독교 강요』에서 기독론 부분을 고찰해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집중해서 입증하고 있다.[27]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존하면서도 신성의 초월성을 지키려는 칼빈적 기독론의 경향을 보여준다.[28] 이를테면,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포함한 기독론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여기에 놀라운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하늘을 버리지 않았고, 동정녀의 태에서 태어나 지상을 두루 다니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가 태초로 부터 그가 하신 바와 같이 항상 세상을 충만히 채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29]

26)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111.
27)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3-7. 윌리스는 '칼빈주의적인 외각'(extra Calvinisticum)은 '유한이 무한이 될 수 없다'(finitum non capax infiniti)는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관점에서 철학적 전제보다는 신학적 배경 가운데서 성육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
28) Andrew M. McGinnis, *The Son of God Beyond the Flesh: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the extra Calvinisticum* (Edinburgh: T&T Clark, 2014), 83-84.
29) *Inst.*, 2.13.4.

칼빈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주장하므로 그의 기독론은 칼세돈 신조에 충실한 기독론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며 성부와 동질이다.[30] 그는 성육신의 목적을 한마디로 죄인의 구속에 두고 있다.[31]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양성,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 공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성경이 확언한다(빌 2:10).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32] 요컨대 그리스도는 참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진다. 물론 그 자신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33]

칼빈의 기독론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기독론은 전통적인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육신을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34] 칼빈은 삼위일체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전능자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재성을 주장하고 있다.

30) *Inst.*, 1.13.4.
31) *Inst.*, 2.1.4.
32) *Inst.*, 1.13.24.
33) *Inst.*, 1.13.27.
34) *Inst.*, 1.13.7.

Ⅳ.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사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에 관한 교리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정립되는 논쟁 과정에서 신조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재는 삼위일체론으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35] 칼빈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삼위일체론을 거부한다. 그의 신학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강요』의 전반적인 구성 원칙으로서 작용한다. 이를 테면. 삼위일체 교리는 칼빈의 신학에 뼈대와 살을 제공하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36]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가 세르베투스(Servetus)의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논쟁한 이유도 구원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37] 칼빈에게 삼위와 일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 가운데 있다. 그는 어거스틴(Augustinus)의 전통에 확고히 서 있으면서도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주장한다.[38] 칼빈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칼빈은 에베소서 3장 15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자와 율법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 그가 영원하신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다. 또 분명한 것은 만약 그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엡 3:15) 아버지께서 아들과의 상호관계가 없었던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불리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증거로부터 우리는 이 명칭이 신약 시대 교회에서 밝히 드러나기 전에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아래에서까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쉽게 결론내릴 수 있다.[39]

칼빈의 삼위일체 교리는 확실히 실천적이고 구원론적이다.[40]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적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실천적 지식이다.[41]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42] 그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자연의 유비에서 흔적을 발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43]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칼빈이 내재적 삼위일체 교리를 내적으로 유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4] 물론 칼빈은 『기독교 강요』나 주석 작품에서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 Trinity) 국면들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대신 경륜적 삼위일체(economic Trinity) 국면들만을 거의 배타적으로 강조한다.[45]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Deus pro nobis)과 관련이 있다.[46]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론과 관련

35) 이용규 ·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173-79.
36) Philip C. Holtrop,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5), 62.
37) *Inst.*, 1.13.12-23.
38) *Inst.*, 2.14.7.
39) *Inst.*, 2.14.7.

40)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칼빈연구』, 창간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68-69.
41) Herman J. Selderhuis(ed.),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504.
42) Selderhuis, 『칼빈 핸드북』, 503.
43) *Inst.*, 1.13.18.
44) *Inst.*, 1.13.5.
45) Selderhuis(ed.), 『칼빈 핸드북』, 501: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강조하는 칼빈 신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칼빈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의 원천이고 규범이다. 이는 칼빈이 원리상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말씀과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고, 칼빈은 가능한 이 말씀과 활동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교리에 집중해서 보면, 이 점은 내재적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한 칼빈의 사고가 (구속)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고,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46) Philip Walker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0. 부틴은 칼빈의 경륜적 삼위일체 국면들만을 거의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관심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경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을 설명하고, 구별하고, 통합하려는 것이다."

하여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 전반에서 드러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아리 바르스(Arie Baars)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한다.

> (1) 위격적 특성에 대한 고전적 지칭 외에도, 칼빈은 원천이신 성부, 지혜이신 성자, 권능이신 성령과 같이 단순하게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한다. 이 세 명칭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개념을 함께 제시한다. 따라서 이 명칭들의 내재적 삼위일체 국면과 경륜적 삼위일체 국면은 특별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는 신격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과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시다. 성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지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활동들을 온갖 지혜로 다스리고, 죄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활동들을 강하고 효과적으로 완성시키는 본질적 능력이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장엄하다고 믿는다.[47]

칼빈의 신학에는 경륜적 삼위일체 사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내재적 삼위일체론도 부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48] 만약 경륜적 삼위일체만을 말하게 된다면 양태론(modal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47) Selderhuis, 『칼빈 핸드북』, 502.
48) *Inst.*, 1.13.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를 주제로 다룰 때 사실상 내재적 삼위일체의 다양한 국면을 다룬다.
49) Selderhuis,『칼빈 핸드북』, 491-501.
50) *Inst.*, 1.13.18.

이와 반대로 경륜적 삼위일체와 관련없이 내재적 삼위일체만을 논하게 되면 사변적으로 흐르기 쉽다.[49] 그러나 칼빈은 경륜적으로 계시된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를 말하고 이를 토대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 그는 현대 신학자처럼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구별도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런 점에서 양태론과 사변에 빠지지 않으면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50]

Ⅴ. 결론

본 논문은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로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선재성은 다른 신학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였다. 그의 신학에서 구원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선재성은 언제나 그 중심에 놓여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구원론적 신학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출발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칼빈의 신학 속에도 경륜적 삼위일체 사상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재적 삼위일체론도 부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신학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치중하므로 양자론(adoptionism)에 빠질 수 위험성을 배제시켰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칼빈주의적인 외각'으로 알려진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늘을 버리지 않았고, 태초로부터 항상 세상을 충만히 채우셨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구약시대에 역사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성육신하셨다고 증거한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현대 신학자들의 역

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로 구별한 것과 다르다. 또한 양태론과 사변적 삼위일체론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련에서 그리스도의 선재를 강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며 아버지와 동질임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기독교를 인간 성취의 종교로 변화시키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방향 설정과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Abstract]

A Reflection on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Yong Kyu Lee (Together Church)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doctrine of preexistence in Calvin's theology. Calvin described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 by utilzing extra Calvinisticum. His understanding of Christ's preexistenc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oteriology. As a consequence, hi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is salvational.

Calvin has also discussed the preexistence of Christ in the relationship of the Trinitarian God. It is true that the economic Trinity appears definitely in his theology. And the immanent Trinity is also expressed in various ways without being denied. When the economic Trinity is strongly affirmed at the cost of the immanent Trinity, there is no way to avoid the risk of modalism. In direct opposition to this extreme, one cannot evade the danger of speculative theology if the immanent Trinity is strongly favored instead of the economic Trinity. However, Calvin knew how to steer clear of Charybdis of modalism and Scylla of speculative based upon his sound and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christology. Calvin spoke of the Trinity in his knowledge of Scripture, which had been revealed in economic terms. Then he was able to discuss the immanent Trinity from the right perspective. Hi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is founded upon a balanced and yet biblical view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ccording to hi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Calvin would have rejected a dichotomy between the historical Jesus and the Christ of faith, the result of speculation in modern theology. For these reasons, the preexistence of Christ, as it was espoused by Calvin, can prevent Christianity from being driven into a religion of achievement. Furthermore, Calvin would direct us into a right direction as we attempt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Keywords: preexistence of Christ, extra Calvinsticum, doctrine of the Trinity, adoptionism, modalism

[참고문헌]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칼빈연구』. 한국칼빈학회,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이용규 ·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18호(2013): 164-92.

이용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5.

최윤배,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 한국조직신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97-131.

Anderson, Charles C. *The Historical Jesus: A Continuing Que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Butin, Philip Walker.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l. trans. F.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Calvin, John. *Institutio Christiae Religionis*. 문병호 역. 『기독교강요('1536년' 라틴어 초판 직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Craddock, Fred. *The Pre-existence of Chris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68.

Dunn, J. D. G. *Christology in the Making: A New Testament I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89.

Fuller, Reginald H. "Pre-Existence Christology: Can We Dispense With It?." *Word & World* 2, (1982): 29-33.

Gathercole, Simon J. *The Preexistent Son: Recovering the Christologies of Mattew, Mark, and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06.

Holtrop, Philip C. 『기독교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McCready, Douglas. *He Came Down From Heaven: The Pre existence of Christ and the Christian Fait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5.

McGinnis, Andrew M. *The Son of God Beyond the Flesh: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the Extra Calvinisticum*. Edinburgh: T&T Clark, 2014.

Muller, Richard 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Selderhuis, Herman J.ed.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Pannenberg, Wolfhart. *Was ist der Mensh? Die Anthropologie der Gegenwart in Lichte der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62.

Van't Spijker, Willem.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Willis, E. David.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The Function of the So-called Extra Calvinisticum in Calvin's Theology*. Leiden: E. J. Brill, 1966.